

사랑니 발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송 승 일 / 아주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사랑니 발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중에 첫번째는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체계는 파노라마 상에서 보이는 매복의 깊이에 따라 난이도를 결정하며 또 이에 맞춘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파노라마 상에 똑같이 보이는 사랑니일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가 매우 다르다. 사랑니 발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인중에는 매복의 깊이 외에도 치근의 형태, 환자의 나이, 체중, 성별, 개구량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매복의 형태, 깊이와 더불어 사랑니 발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발치 전 이러한 요인을 반드시 잘 살펴 내가 뽑을 것인지,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의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랑니 발치를 결정할 때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사랑니 발치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이다. 개인 치과에서 의뢰된 많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뽑아야 하는 치아인지 물어본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랑니 발치가 주는 득과 실을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낮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과 더불어 여러가지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사랑니 발치가 주는 이점이 크다면 발치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랑니 발치를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신경손상일 것이다. 정확한 예측은 힘들다 하더라도 방사선 사진 상에서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하며 가능성이 큰 경우 의도적인 치관 절제술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수술 전에는 설명이지만 수술 후에는 변명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 취득
-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및 전임의
- *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전임강사, 조교수, 진료부교수, 진료교수
-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방문교수
- * 현,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치과진료센터 센터장